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5면
후백제 역사적 가치 재조명 · 사업 발굴 협력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음 6월 14일) 제305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중앙정부 건의사항 실질 후속조치 마련"

김관영 도지사, 정책조정회의 열고 정부 대상 활동 성과 공유

"국가 아젠다로 만드는 출발점… 전북발전 전기 만들어야"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8일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9일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전북의 아젠다를 국가의 아젠다로 만든 출발점이 되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전북발전의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 "새만금 등 전북 현안뿐 아니라 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한 지역대학 학과 조정, 10% 내에서 비자발급 권한 이양 제안과 관련, 대통령도 '좋은 제안이다'고 답하며, 적극적인 검토 의지를 표명했다"고 당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김 지사는 이어 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우리가 준비한 11개의 당면 현안에 대해 서면이 아닌 브리핑을 직접 모두 했고, 경제부총리도 그 자리에 배석한 관계관들에게 최선을 다해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며 지난 이틀간의 성과를 전했다.

김 지사는 "이제 시작이다. 중앙정부가 전북 현안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낸 것도 중요한 성과인 만큼, 각 실국에서는 실질적이고 철저한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실행해 결실을 거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관영 지사는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조직개편 전이라도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진용을 먼저 구축하라"고 지시하며, 우선 기업 유치 관련 부서의 협업시스템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일자리경제본부를 비롯 새만금해양수산국, 농축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기업유치와 관련된 부서들의 연석회의를 가동할 것"을 주문하고 "정무부지사가 중심이 돼, 기업유치 관련 부서들의 정보와 활동을 긴밀하게 공유하고 조율해 나가면서 전략적인 유치활동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1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제8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등 시도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 육성, 교육발전 위해 노력"

서거석 전북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 부회장 선출

김지철 충남교육감 ·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함께 추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11일 충남 부여에서 개최된 제8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김지철 충남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함께 부회장으로 추대됐다.

이는 제15~16대 전북대 총장 연임과 전국 국립·사립대학협의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소통을 통한 교육의 변화와 혁신, 발전 등 성과를 보여줬던 서 교육감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서 교육감은 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비롯한 임원진과 함께 2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감 상호 간의 교류 속에서 지방교육자치를 확립하고, 교육연구단체, 교육시민단체 등 유관단체와의 소통 협력, 정책·입법 연구 등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특히 전국 시·도교육청의 법령, 제도개선, 교육정책 등 공통된 현안들을 교육부 또는 해당 관련 부처에 적극 대응해 정책반영률을 높이는 역할도 하게 된다.

서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전국의 시·도교육감과 함께 지방교육자치 육성을 위해 뜻을 모으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기자

도, 하반기 승진 · 전보인사 단행

윤동욱 문화관광국장 2급 승진… 일자리경제본부장에

도민안전실장에 김인태 전 도의회 사무처장 내정

문성철 완주 부군수 내정자 등 4명 시군 부단체장에

문성철

이종훈

윤동욱

정화영

노형수

전북도가 승진 인사와 함께 실국·과장급 및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하반기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인사위원회는 2급 1명과 4급 3명, 5급 9명, 6급 이하 29명 등 총 91명의 승진 내정자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과 전병순 의회사무처장 등 일부 간부의 공로연수 등 퇴직 요인과 파견, 휴직 등에 따라 승진 요인이 발생했다.

2급으로 승진 내정된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순창 출신으로 1997년 지방고시 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장, 군산부시장,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등을 역임했다.

함께 진행된 실국장급 전보 인사에서는 휴직에서 복귀한 김인태 전 도의회 사무처장이 도민안전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일자리경제본부장에 내정됐다.

이어, 시도지사협의로 파견됐던 천선미 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정책국장이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전북도의회로 전출됐다.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전보인사도 이뤄졌다.

완주 부군수에는 문성철 정무기획과장이, 장수 부군수에는 이종훈 전 비서실장이, 순창 부군수에는 정화영 특별사법경찰과장, 고창 부군수에는 노형수 주택건축과장이 부임한다.

문성철 완주 부군수 내정자는 공보행정팀장, 국제교류팀장, 도서관문화시설팀장 등을 지냈으며, 이종훈 장수 부군수 내정자는 비서실장과 일자리경제정책관, 대도약기획단장을 역임했다.

정화영 순창 부군수 내정자는 국제협력과장, 환경정책팀장, 인재양성팀장 등을 역임했으며, 노형수 고창 부군수 내정자는 새만금수질개선과장, 도시경관팀장 등을 지냈다. /김경수 기자

전북 아태 마스터스 공식 후원사 모집

후원 등급에 따라 차등 권리 부여… 대회 마케팅 권리 제공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후원사 모집에 나섰다.

이번 공식 후원 프로그램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며, 공식후원사로 선정된 업체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브랜드를 노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갖는다.

후원 부문과 규모에 따라 후원사는 공식 스폰서, 공식 서플라이어, 공식 서포터로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후원 권리가 차등 적용된다. 공식 후원 프로그램에는 현금과 현물 형태 모두 참여 가능하며 상호 협의를 통해 후원 규모 및 등급을 정할 수 있다.

후원 분야는 담배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개방돼 있다. 다만, 조직위원회와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IMGA) 간에 체결한 개최도시 계약에 따라 대회명 앞에 후원사를 명시하는 타이틀 스폰서는 모집하지 않는다.

모집 절차는 먼저 희망 기업이 조직위로 공식 후원 참여의향서를 제출하면 후원 기업과 세부 협의를 거쳐 최종 후원 협약을 체결한다.

조직위 관계자는"공식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회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공식후원사들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 생활체육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대회 홈페이지(www.apmg2023.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은퇴선수와 아마추어, 동호인 등 만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생활체육 국제종합대회다. /장은성 기자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